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동아방송예술대학교와 MOU 체결

글.
이승현 방송과기술 기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동아방송예술대학교와 미디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제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11월 13일 오후 2시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업무제휴협약식은 박종석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과 최용혁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총장, 최원경 기획실장, 박성규 창의실습지원센터 소장, 이용창 방송기술계열 학과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박종석 회장은 “이번 MOU를 통해 방송기술의 영역 확장과 긴밀한 협조가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통해 알렸고, 최용혁 총장은 “이름뿐인 MOU가 아닌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양 기관의 특성이 더하여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양 기관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추진하며, 방송기술의 발전, 방송기술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차후 정부연구사업 및 기업수탁과제를 공동 수행하고, 교육 과정, 공동 세미나, 학술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통한 인적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1, 2. 학생들의 실습이 이뤄지고 있는 UHD TV 스튜디오, 방송장비도 학생들이 직접 운용하여 실습 중이었다.

3. Virtual(가상TV) 스튜디오

4. 실제 IPTV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HDTV 스튜디오



학생들의 실습을 위해 마련된 장비유지보수실, 대여 형식으로 실습에 필요한 장비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소니 PXW-F55과 고프로 Hero4, 5D Mark III 등 캠코더, DSLR, 렌즈, 조명, 음향으로 나뉘어 장비들이 충분히 대여되고 있었다.

방송기술 인재 교육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는 1997년 '동아방송전문대학'으로 개교하여 2007년 '동아방송예술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정문쪽에 1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탑을 준공했다. 2008년 Full HD 스튜디오를 준공하였고, 미국 벨헤이븐대학,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영국 본빌대학 등과 학사 교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유수의 방송국과 해외인턴십 교류 협정도 체결하였다. 2012년에 현재의 '동아방송예술대학교'로 교명을 확정하였고, 여러 기관과도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여 교류를 추진 중이다.

국내 대학 최초로 2009년부터 자체 HDTV 중계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레TV 채널에서는 기존 캠퍼스TV를 '브릿지TV'로 변경하여 송출 중이다. 교육부로부터 2013년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2014년 '방송예술분야 특장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UHD TV 및 Virtual(가상TV) 스튜디오를 마련해 시대에 걸맞은 방송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VR·AR 기반 실감콘텐츠 및 드론 기반 융합콘텐츠 교육센터를 운영해 창의력 있는 콘텐츠 전문가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